

월간 주요 이슈

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4. 6. 14.)

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 미달

- 소비자원, '자율 제품안전 협약'에 따라 27개 제품 판매차단 완료 -

- 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이 해외직구 플랫폼(알리익스프레스, 테무, 쿠팡)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, 어린이제품,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, 조사대상 88개 중 27개(30.7%)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
- 조사대상 이륜자동차 안전모 대부분 사고 시 충격흡수 못해
 -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, 조사대상 10개 중 9개(90.0%)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하였고, 8개 제품은 고온조건, 저온조건, 침지조건(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)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($10,000\text{m/s}^2$)가 측정되어 충격 흡수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조사대상 어린이제품 중 특히 물놀이 기구가 유해물질 검출률 높아
 -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(완구) 9개 중 7개(77.8%) 제품의 본체, 손잡이, 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되었고,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(30.0%)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, MIT가 검출됐다.
 - 무선 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9개 중 1개(11.1%)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.
- 알리익스프레스, 테무, 쿠팡 위해제품 판매 차단 완료
 -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(알리익스프레스, 테무)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'자율 제품안전 협약'을 체결('24.5.13.)한 바,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.
 -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.